

고전 스토리텔러의 세계와 미래

정창권(고려대)

〈목 차〉

- | | |
|-------------------------------------|---------------------|
| 1. 대학과 사회의 중개자가 필요하다 | 3. 고전 스토리텔링의 과정과 방법 |
| 2. 고전 스토리텔러의 세계
- 필자의 경험담을 토대로 - | 4. 고전 스토리텔러의 미래상 |

1. 대학과 사회의 중개자가 필요하다

얼마 전 국립한글박물관의 유물 스토리텔링에 관한 자문회의를 시작하기 전이었다. 경북대 백두현 선생님과 필자는 한글 유물을 스토리텔링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없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대강 이런 대화를 나누었다.

“아직도 우리나라 박사학위자들은 교수라는 좁은 구멍에만 들어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인생을 실패한 것처럼 여기고 있고요. 마치 예전의 사범고시 준비생을 보는 듯합니다.”

“맞습니다. 학문을 계속하며 자아를 실현하는 길은 매우 다양한데, 우리나라 박사학위자들은 여전히 한 가지 길만을 고수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대학인의 사회적 역할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듣게 되고, 심지어 한글 유물을 스토리텔링할 수 있는 전문 인력조차 없게 된 듯합니다.”

실제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조사에 의하면, 최근 인문/사회 계열 박사학

위자의 60%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취업하고, 그중 75% 이상이 시간강사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연구진들은 우리나라 박사학위자들이 대학 이외의 곳에서도 일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¹⁾.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과 사회의 소통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이른바 ‘대중적 인문학자’, ‘중간 필자’, ‘고전 스토리텔러’ 등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은 대학에서 쌓아온 전문지식을 대중들에게 쉽게 풀어주는 중개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 중 고전 분야의 대표적인 인물들로 정민, 강명관, 고미숙, 안대회, 그리고 필자의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정민은 이 분야의 선두주자이자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비록 고전을 전공했지만, 한시와 한문학, 소품, 지식인사, 기타 새나 와당, 차 등의 다양한 분야를 자유롭게 연구했다. 그것들의 발표 매체도 학술서, 대중교양서, 어린이책, 인터넷, 방송 등 매우 다양한 편이다²⁾

강명관도 한문학을 기반으로 조선시대 풍속사, 사회사, 음악사, 미술사, 여성사, 책 문화사 등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며 지속적으로 저술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그는 거침없고 날카로운 문체로 대중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³⁾

고미숙은 스스로를 고전평론가라 부른다. 물론 그는 고전을 기본적인 토대로 삼고 있지만, 실제로는 철학, 의학, 명리학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그러면서 현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삶의 고뇌를 풀어가려 하고 있다.⁴⁾

안대회 역시 고전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현대적 의미가 있는 고전을 강조하고 있다. 단순히 옛 것을 안다는 차원이 아닌, 현재를 설명하고 미래로

1) 『인문사회 박사취득자 60% 비정규직』, 『베리타스알파』2014년 7월 29일자.

2) 정민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한시미학산책』, 『비슷한 것은 가짜다』, 『와당의 풍경』, 『정민 선생이 들려주는 한시 이야기』, 『미쳐야 미친다』, 『꽃들의 웃음판』, 『다산선생 지식경영법』, 『조선의 차문화』 등이 있다.

3) 강명관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조선시대 문학예술의 생성공간』, 『조선의 뒷골목 풍경』, 『조선 사람들, 혜원의 그림 밖으로 나오다』, 『열녀의 탄생』, 『책벌레들 조선을 만든다』 등을 들 수 있다.

4) 고미숙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공부의 달인, 호모 쿵푸스』, 『나의 운명 사용설명서: 사주명리학과 안티 오이디푸스』, 『고미숙의 몸과 인문학: 동의보감의 눈으로 세상을 보다』,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 등을 들 수 있다.

나아가는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도 문학과 역사, 건축, 공학, 예술 등 통합학문을 하고 있다. 그래서 특히 18세기사와 관련된 저술들을 계속 집필하고 있다.⁵⁾

한편, 필자의 경우는 좀더 적극적으로 대중들과 소통하려 하고 있다. 우선 필자도 문학에만 빠져 있지 않고 역사, 사회, 과학, 예술 등 다방면에 걸쳐 관심을 두고 있다. 특히 여성사나 장애인사, 기타 하층민사 등 역사 속 소외 계층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또한 그것들에 이야기체, 즉 스토리텔링을 가미하여 보다 쉽고 재미있게 대중들에게 들려주려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1세기 디지털 시대의 문학은 문화콘텐츠의 원천 소스로서도 작용한다는 사실을 간파하고서, 고전만이 아니라 문화콘텐츠나 스토리텔링, 융(복)합 등 최근의 응용학문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두고 있다.

이처럼 필자는 고전에 스토리텔링을 가미하여 다양한 인문 콘텐츠를 생산해내는 일종의 ‘고전 스토리텔러’라 할 수 있다. 아직까지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같은 고전 스토리텔링을 통해 대학과 사회의 중개역할을 하는 길도 우리나라 박사학위자의 새로운 진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인문학의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취업난 해소에도 적잖은 도움을 줄 수 있다. 현재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 고전 스토리텔러들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글에선 필자의 경험을 토대로 고전 스토리텔러의 세계와 미래를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지금까지 필자가 걸어온 길을 차례대로 따라가면서 그것을 시도하게 된 계기나 과정, 방법, 의의, 가능성 등을 생생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그래서 향후 이러한 길을 걷고자 하는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한다.

5) 안대희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선비답게 산다는 것』, 『조선의 프로페셔널』, 『정조의 비밀편지』, 『조선을 사로잡은 끈들』 등을 들 수 있다.

2. 고전 스토리텔러의 세계 – 필자의 경험담을 토대로 –

2.1. 이야기가 있는 인문서

2.1.1. 한국 여성사를 재조명하다

일반적으로 박사학위를 받으면 어떻게 해서든 대학교수가 되어 안정되게 살아가고자 한다. 하지만 필자는 꼭 교수로만 한정된 삶을 살고 싶지는 않았다. 그보다는 대학과 사회의 소통 역할을 담당하며 조금이나마 세상에 유익한 일을 해보고 싶었다. 특히 어린 시절부터 꿈꾸어왔던 역사 속의 소외 계층, 즉 주변부 사람들을 연구하고 널리 알리는 일을 해보고 싶었다. 그럼 최소한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라도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고, 왜 똑같은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하는지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⁶⁾ 사실 필자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힘겹게 공부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인지 어릴 때부터 필자와 같은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 특히 역사 속의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글로 써보고 싶었다.

그때 필자가 선정한 고전 작품이 『미암일기』였다. 미암일기는 16세기 미암 유희춘(1513~1577)이 11년간 기록한 것으로, 조선중기 양반 가정의 생활문화가 잘 나타나 있다. 특히 가부장제가 정착되기 이전의 선진적인 여성사가 잘 드러나 있다. 다시 말해 한 양반 가정을 배경으로 당시의 여성이나 하층민 문제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필자는 미암일기를 몇 번씩 읽으면서 거기에 나타난 생활사를 최대한 섬세하고 다양하게 찾아냈다. 예컨대 의식주 등 유형의 생활사만이 아니라 꿈이나 사랑, 가족에 같은 무형의 생활사도 중시했다. 또 양반 가족을 비롯해서 노비, 첩, 기녀, 의녀 등 하층민에게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와 함께 음식사, 복식사, 건축사, 가족사, 노비사, 기녀사 등 주변 자료들을 광범위하게 읽으며 미암일기에서 부족한 내용들을 보완했다.

그런 다음 일기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되, 미암 일가족의 생활상을 가장

6) 정창권, 「일기를 통한 우리 생활사 엿보기」, 『한국학연구』18,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2003, 220면(『고전문학과 콘텐츠』, 월인, 2013, 재수록).

잘 드러내주는 6가지 테마를 추출했다. 제1부의 관직생활, 살림살이, 나들이, 제2부의 재산증식, 부부갈등, 노후생활 등이 그것이다. 그리하여 16세기인 조선중기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대단히 개방적이고 열린 사회였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실제로 이 시기만 해도 우리나라는 장가와 처가살이가 보편적인 혼인풍속이었다. 그래서인지 가족관계에서 아들과 딸을 가리지 않았고, 친족관계에서 본손과 외손을 구별하지 않았다. 또한 재산을 아들과 딸이 균등하게 상속받았고, 조상 제사도 서로 돌려가며 지내는 윤희봉사를 했다. 남녀의 권리와 의무가 서로 동등했던 셈이다. 나아가 여성의 바깥출입도 비교적 자유로웠을 뿐 아니라, 학문과 예술 활동도 장려되었다.⁷⁾

이미 대학과 사회의 소통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각오한 이상, 필자는 글쓰기에 있어서도 설명체나 논문체만을 고집하지 않았다. 그래서 발견한 것이 픽션과 논픽션이 결합된 퓨전식 글쓰기, 즉 ‘이야기체’라는 독특한 글쓰기 방식이었다. 마치 어릴 적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옛날이야기처럼 작가가 설명도 하고 일화도 들려주는 등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글쓰기 방식이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야기체는 기존의 설명이나 논문 형식보다 오히려 힘든 글쓰기 방식이다. 소설처럼 작가가 허구적으로 꾸며낸 것이 아니라, 고전을 토대로 해서 쉽고 재미있게 이야기체로 풀어낸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독자의 입장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고전을 접하게 되므로 나름대로 의미 있는 반응을 보여주었다.

이후로도 필자는 여성사 관련 이야기가 있는 인문서를 몇 권 더 집필했다. 이번에는 좀더 하층민 여성사에 초점을 두고 접근했는데, 『향량, 산유화로 지다』와 『꽃으로 피기보다 새가 되어 날아가리』가 바로 그것이다.

『향량, 산유화로 지다』는 숙종 28년(1702) 경상도 선산에서 일어난 향량이란 한 여인의 자살사건을 가족사적으로 파헤쳐본 것이다. 지금까지 그녀는 조선후기 평민층 출신의 대표적인 열녀로 인식되어 왔지만, 그 실상을 파헤쳐 보니 당시 가족사의 변화를 총체적으로 겪은 비운의 여인이었다. 특히 그녀의 자살사건에는 계모를 비롯해서 가정폭력, 이혼, 재혼 문제 등 갈등적 측면의 가족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7) 정창권, 『양성평등 관점에서 본 한국 여성사』, 『시민인문학』17, 경기대 인문과학연구소, 2009(『고전문학과 콘텐츠』, 월인, 2013, 202면, 재수록).

이 작품 역시 앞서처럼 원전을 중시하는 한편, 문학과 타 분야를 결합한 통합적 연구방법을 취하였다. 전, 한시, 소설, 잡록 등 향량사건을 기록한 문헌 뿐 아니라, 그동안 제출된 연구 성과를 모두 수집해서 향량의 자살사건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코자 했다. 그와 더불어 역사학, 법학, 가족학에서 이룩한 한국 가족사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향량의 자결 원인과 실체를 파악했다. 또한 글쓰기에 있어서도 전체 내용을 일화 형식으로 전개하되 보다 깊이 있는 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설명체로 전달하는, 픽션과 논픽션의 퓨전식 글쓰기를 시도했다. 실제로 이 작품은 픽션-논픽션-픽션의 형태를 띠고 전개된다.⁸⁾

『꽃으로 피기보다 새가 되어 날아가리』는 18세기 제주의 여자 거상(巨商) 김만덕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녀는 조선 최대의 여자 거상이자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 즉 가진 자의 사회적 책임을 선구적으로 보여준 인물이었다. 원래 그녀는 제주의 관기였으나 20살 무렵 관아에 나아가 호소하여 양민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포구 근처에 객주를 차리고 해상 유통업에 뛰어들어 큰 상인이 되었다. 이후 제주에 큰 기근이 들어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죽자, 그녀는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물에서 쌀을 사오게 하여 굶주린 사람들을 구제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정조 임금의 특별히 그 소원을 묻자, 그녀는 한양으로 올라가 임금님을 직접 뵙고, 다시 금강산에 들어가 일만이천봉을 두루 구경한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고 말했다. 그녀야말로 진정한 조선의 거상(巨商)이었던 것이다.

이 작품에서도 전, 한시, 실록, 묘비문 등 만덕 관련 자료 뿐 아니라 제주의 역사, 상업사, 구휼사, 시각자료 등을 통합하여 접근함으로써, 조선의 큰 상인 김만덕과 18세기 제주의 생활문화를 그야말로 생생하게 재현해내고자 했다. 글쓰기 방식도 기존의 일화와 설명이 교차하는 형식을 넘어서, 최대한 일화 형태로 전개하되 필요한 부분에서만 역사적 설명을 가하는 보다 적극적인 스토리텔링 방식을 취했다.⁹⁾

여성사 관련 작업은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일이 대단히 많다. 특히 180권 180책 <완월회맹언>을 비롯한 조선후기 장편 여성소설의 실체를 밝혀내는

8) 정창권, 『향량, 산유화로 지다』, 풀빛, 2004.

9) 정창권, 『꽃으로 피기보다 새가 되어 날아가리』, 푸른숲, 2006.

작업은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2.1.2. 한국 장애인사를 개척하다

여성사 관련 연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필자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장애인사로 옮겨갔다. 필자는 고등학교 시절 한때 장애인 수용시설에서 지적장애, 간질장애, 중증장애 등 여러 유형의 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했는데, 그 뒤로 장애인은 필자 인생의 주요 화두가 되었다. 그래서 언젠가는 역사 속에서 장애인이 어떤 존재였고, 사회적으로 무슨 역할을 했으며, 세상을 얼마나 이롭게 했는지 자세히 밝혀보고 싶었다. 그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조금이나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따지고 보면 장애 문제는 비장애인이 만든 것으로, 무엇보다 먼저 비장애인이 풀려고 노력해야 한다. ‘결자해지(結者解之)’라 하지 않았던가. 또한 우리나라는 여전히 장애 문제를 사회복지학의 영역으로만 미뤄두고 인문학적으론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인간적인 측면은 무시하고 제도적인 측면에서만 관심을 기울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필자는 인문학, 특히 역사적인 측면에서 장애 문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해왔다. 그 대표적인 저서가 『세상에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역사 속 장애인은 어떻게 살았을까』, 『한국장애인사』 등이다. 우선 『세상에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전통시대 장애인의 개념과 유형, 복지정책, 각 유형별 장애인사, 역사적 의의 등을 개괄적으로 검토한 것이다.¹⁰⁾ 또 『역사 속 장애인은 어떻게 살았을까』는 각종 사료와 함께 한국 장애인사를 실증적으로 보여준 것이다.¹¹⁾ 끝으로 『한국장애인사』는 한국의 대표적인 장애 인물을 왕족과 관료, 학자, 예술, 기타 등으로 나누어 평전 형식으로 살펴본 것이다.¹²⁾

이로써 전통시대엔 ‘장애’란 별로 없었음을 밝혀냈다. 전통시대엔 개인적 장애는 있을지언정 사회적 장애는 그리 크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처럼 장애인이라 하여 천대받지 않았고, 장애의 특성에 맞는 직업이 주어졌으

10) 정창권, 『세상에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문학동네, 2005.

11) 정창권, 『역사 속 장애인은 어떻게 살았을까』, 글항아리, 2011.

12) 정창권·윤종선·방귀희·김언지, 『한국장애인사』, 숲대, 2014.

며, 또 양반층의 경우엔 과거시험을 보아 최고 관직인 정1품 벼슬에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이다. 조선시대에 그토록 많은 장애인 왕과 왕족, 관료, 학자, 예술가, 기타 유명한 사람들이 존재했던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다.

얼마 전 필자는 근대전환기의 장애인사에 관한 논문을 썼는데, 앞으로도 일제강점기 장애인사, 동서양 장애인 예술사까지 지속적으로 연구해나갈 예정이다.

2.2.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의 이론과 실제

2.2.1. 문화콘텐츠 시대와 국문학의 위상 변화

1990년대 중반 이후 IT가 발달하면서 인터넷이나 휴대폰 등 다양한 디지털 매체들이 출현했다. 또한 2005년 이후 방송과 통신, 인터넷의 융합, 곧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가 되면서 DMB나 IPTV, Wibro,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과 같은 새로운 매체들이 더욱 빠르게 등장하였다. 그와 함께 콘텐츠의 중요성이 급격히 부각되고 있다. 디지털 매체들이 늘어나면서 그 속을 채워줄 내용물인 콘텐츠가 중요해진 것이다. 게다가 요즘 콘텐츠는 잘만 만들면 커다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고부가가치 산업이자, 덩달아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는 한류 드라마나 영화, 대중음악 콘텐츠들의 영향력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IT의 발달로 디지털 매체들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문화를 가공해서 콘텐츠로 만들어 파는 이른바 ‘문화 콘텐츠의 시대’가 도래했다.¹³⁾

이러한 문화콘텐츠의 시대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문학의 위상도 변화하게 되었다. 이젠 문학도 그 자체만이 아닌 문화콘텐츠의 원천 소스로서도 작용하게 된 것이다. 또 작가들은 문화콘텐츠의 원천 소스 생산자로도 활동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젠 문학 연구에서 문화콘텐츠 연구로 논의가 확대되어야 하며, 역사나 과학, 예술과 같은 타 학문 분야와 결합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도록 해야 한다.¹⁴⁾

13) 정창권, 『MT 콘텐츠학』, 청어람, 2013, 18~19면.

14) 지금까지 우리는 이러한 문화콘텐츠의 중요성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었지만, 그 구체적인

그렇다면 고전문학 전공자인 필자는 왜 문화콘텐츠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 필자가 문화콘텐츠를 처음 접한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였다. 당시 국내외 석학들은 21세기를 전망하면서 저마다 문화콘텐츠 시대의 도래 및 콘텐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¹⁵⁾ 또 문화콘텐츠는 앞서서와 같은 역사 속 소외 계층의 이야기를 잘 가공해서 대중들과 소통시키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듯했다. 그래서 이후 필자는 인문학과 함께 응용학문인 문화콘텐츠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4년부터는 학부와 대학원에서 문화콘텐츠 관련 교양 및 전공 과목들을 강의하는 한편, 그에 대한 연구 논문이나 교재를 계속 집필하여 세상에 내놓았다. 예를 들어 『문화콘텐츠학 강의(깊이 이해하기)』와 『문화콘텐츠학 강의(쉽게 개발하기)』에서는 문화콘텐츠의 이해와 실제를,¹⁶⁾ 『문화콘텐츠 교육학』에서는 인문학 기반의 문화콘텐츠 교육방법론을¹⁷⁾ 각각 다루었다.

그와 함께 필자는 문화콘텐츠 산업 현장의 전문 인력들과 협력하여 실제 콘텐츠를 제작하는 일에도 틈나는 대로 참여했다. 문화콘텐츠는 실용학문으로서 이론과 실제, 현장의 조화, 특히 실무 능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선 만화가와 함께 학습만화 『거상 김만덕』을 개발했고, 방송 제작자들과 함께 여러 편의 다큐멘터리(김만덕, 조신선, 전기수 등), 라디오(장애인사), 드라마(김만덕)를 개발했다. 또 비록 세상에 나오지는 못했지만 영화감독 김현정과 함께 사극 영화를, 가수 김수희와 함께 여성 관련 콘서트를 준비한 적이 있었다.¹⁸⁾ 뿐만 아니라 CT(문화기술) 제작자와 함께 정변(政變)이나 표석, 오감지향형 아바타 등 다양한 디지털콘텐츠를 제작했으며, 미암유물전시관의 전시용 애니메이션 개발에도 참여한 적이 있다.

요즘 필자는 문화콘텐츠 중에서도 원천 소스, 즉 이야기 분야에만 전념하

연구 방법론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 15) 물론 엄밀히 말하면 당시엔 ‘문화산업’이라 했고, ‘문화콘텐츠’란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이후부터였다.
- 16) 정창권, 『문화콘텐츠학 강의(깊이 이해하기)』,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정창권, 『문화콘텐츠학 강의(쉽게 개발하기)』,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 17) 정창권, 『문화콘텐츠 교육학』, 북코리아, 2009.
- 18) 참고로 문화콘텐츠 업계에선 제작비 문제나 트렌드 변화, 기타 개인 사정 등으로 콘텐츠를 완성하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고 있다. 문학 전공자로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이고, 날이 갈수록 제작보다는 이야기가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필자는 현대의 순수 창작보다는 전통시대 문학이나 역사, 철학, 예술, 과학 등을 재미있는 이야기로 가공하는 고전 창작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2.2.2. 이야기가 세상을 지배한다

한편, 문화콘텐츠 시대가 되면서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스토리텔링은 문화콘텐츠에서 가장 중요한 원천 소스, 즉 이야기 부문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스토리텔링은 문화콘텐츠의 핵심 기술인 것이다. 그와 함께 롤프 옌센(Rolf Jensen)에 의하면, 지식/정보화 사회 이후에는 꿈과 감성을 기반으로 한 ‘드림 소사이어티(dream society)’가 등장할 것이라고 한다. 이젠 꿈과 감성을 자극하는 ‘이야기’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며, 여러 가지 새로운 시장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요즘은 평범한 상품보다 이야기가 있는 상품이 훨씬 각광받고, 지식이나 정보도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풀어서 들려주는 작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스토리텔링은 말 그대로 ‘이야기 하다’이다. 여기서 ‘이야기’는 사건이나 지식/정보를 의미하고, ‘하다’는 문자나 소리, 그림, 영상 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스토리텔링은 이야기를 여러 가지 매체로 표현하여 사람들에게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들려주는 것이다. 좀더 쉽게 말한다면 스토리텔링이란 이야기로서 세상과 소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스토리텔링은 디지털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의사소통 수단이 되었다. 실제로 요즘 스토리텔링은 우리 주위의 곳곳에서 활용되고 있다. 우선 문화콘텐츠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데, 출판, 만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영화, 공연, 애니메이션, 게임, 전시, 축제, 여행, 에듀테인먼트, 인터넷콘텐츠 등이 그것이다. 또한 최근 스토리텔링은 음식이나 패션, 건축, 기업, 농어촌 등 산업계 뿐 아니라 정치나 행정, 박물관, 병원, 학교, 법원, 종교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쓰이고 있다. 원래 스토리텔링은 문예학에서 주로 쓰였으나, 요즘은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스토리텔링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필자도 역시 앞서서처럼 이야기

가 있는 인문서를 썼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스토리텔링 관련 연구 및 정부사업을 직접 실시해보기도 했다. 우선 필자는 문화콘텐츠 분야의 스토리텔링 방법론을 연구하여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이란 교재를 집필했다.¹⁹⁾ 또 우리 고전을 활용한 대중가요나 광고, 상품 등의 스토리텔링 방식을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몇 편의 논문을 쓰기도 했다.²⁰⁾ 그와 함께 정부에서 발주한 스토리텔링 사업의 책임자가 되어 직접 시행해보기도 했는데, 대표적으로 서울시 관광 스토리텔링 사업과 국립한글박물관 유물 스토리텔링 사업이 그것이다.

서울시에선 지난 2013년부터 서울 전역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발굴한 뒤, 이를 매력있는 관광 명소로 개발하는 스토리텔링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필자는 이 사업의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2014년에는 이 사업의 스토리텔링 과업을 직접 맡아서 진행해보기도 했다. 2014년에는 ‘서울 속 세계여행’이란 주제 아래 명동과 이태원을 중심으로 스토리텔링 관광 명소를 개발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중에서 이태원을 맡아 본격적인 사업에 앞서 이태원 곳곳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 자원을 발굴한 뒤, 그것을 토대로 대표 이야기를 선정 및 가공할 뿐 아니라 그 이야기를 활용한 관광 자원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서울시에선 관광콘텐츠 업체를 선정하여 그것들을 좀 더 보완한 후 이야기 가이드북, 스토리텔링 관광 상품물, 체험 프로그램, 이야기 코스 등을 개발하고 있다.

서울시 스토리텔링 사업이 끝나갈 무렵, 필자는 또다시 국립한글박물관 유물 스토리텔링 과업을 맡게 되었다. 주지하다시피 한글 유물은 평면적인 문헌들이 많아 자칫 관람객의 흥미를 끌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한글박물관에선 유물에 얽힌 이야기로 접근하는 스토리텔링 박물관을 표방하고 있다. 이번에도 필자는 팀원들과 함께 한글 유물 70여점을 대상으로 스토리텔링 작업

19) 정창권, 위의 책, 북코리아, 2008.

20) 정창권, 『고전문학을 활용한 대중가요의 종합적 고찰』, 『어문논집』66, 민족어문학회, 2012 (『고전문학과 콘텐츠』, 월인, 2013, 재수록).

” , 『고전을 활용한 광고 콘텐츠 연구』, 『인문콘텐츠』14, 인문콘텐츠학회, 2009(『고전문학과 콘텐츠』, 월인, 2013, 재수록).

” , 『고전을 활용한 상품 스토리텔링 연구』, 『돈암어문학』21, 돈암어문학회, 2008(『고전문학과 콘텐츠』, 월인, 2013, 재수록).

을 해나갔다. 우리는 먼저 그 유물의 주제와 키워드, 소개, 상세 스토리텔링, 핵심 스토리텔링, 시각자료와 출처, 활용방안 등을 차례대로 기록한 유물 스토리집을 작성했다. 향후 한글박물관에선 이를 토대로 박물관 해설사 양성, 홍보자료, 도록, 교육프로그램, 관광기념품 등을 만들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는 그 유물 스토리텔링의 주제별 그룹화를 통한 이야기 지도를 개발했다. 아동, 청소년, 가족, 연인과 부부, 일반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글과 교육, 융합, 생활, 사랑, 세계화란 주제로 이야기 지도를 개발한 것이다. 향후 관람객들은 이 지도를 가지고 다니며 자유롭게 흥미진진하게 한글박물관을 관람할 것이다.

이처럼 최근 고전 스토리텔러들은 단지 출판을 염두한 글쓰기에만 국한하지 않고,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스토리텔링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필자는 21세기 디지털 시대 국문학 전공자의 미래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본다.

2.3. 징검다리 역사책 시리즈

요즘 필자의 관심은 또다시 인문서로 향하고 있다. 인문학은 필자 학문의 토대이자 궁극적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등 응용 학문을 연구한 이상, 앞으로는 좀더 이야기성이 강한 작품을 써보고 싶었다. 그때 마침 한 출판사의 어린이책 편집장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필자의 인문서들은 이야기체로 쓰여 있어서 심지어 어린이들도 읽을 수 있는데, 이번엔 아예 본격적으로 어린이책을 써보면 어떻겠느냐는 것이다. 물론 이전의 인문서처럼 고전을 깊이 있게 연구하되 이야기체로 재미있게 풀어쓴 어린이책을 써달라고 했다.

일반적인 역사 어린이책은 역사 지식을 무미건조하게 설명식으로 들려주거나, 현대 캐릭터가 과거로 가서 역사 지식을 가볍게 들려주는 형식으로 쓰여 있다. 하지만 필자는 그보다는 역사적 실존 인물에서 캐릭터를 찾고, 그의 실제 일화를 스토리로 짜며, 역사 지식도 철저한 연구를 토대로 검증된 내용들만 들려주고자 했다. 물론 작품이 약간 어렵고 무겁게 느껴지겠지만, 최대한 흥미롭고 신뢰할만한 어린이책을 쓰고 싶었다. 지금까지 『기이한 책장수 조신선』, 『거리의 이야기꾼 전기수』, 『포도대장 장봉익, 검계를 소탕하다』, 『한

쪽 눈의 괴짜화가 최복』등을 썼는데, 그중에서 문학과 관련된 앞의 두 작품만 살펴보도록 하자.

『기이한 책장수 조신선』은 조선후기 최고의 책장수 조신선을 통해 당시의 책 문화사를 살펴본 것이다. 필자는 석사과정 때 서지학 혹은 문헌학에 빠진 적이 있었다. 그래서 나중에 꼭 책 문화사를 써보고 싶었다. 그런데 우연히 18세기 조선 최고의 책장수 조신선에 관한 자료를 발견하고는 정말 ‘바로 이거다!’ 싶었다. 그는 특이한 외모를 갖고 있었는데, 엄청난 체구에 붉은 수염과 뺨, 푸른 눈동자를 가졌으며 우스갯소리를 잘했다고 한다. 100살이 넘게 살았어도 외모는 언제나 35살에 멈춰 있었다. 항상 몸속에 책을 지니고 한양 거리를 뛰어다녔으며, 책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해박했다. 그야말로 기가 막힌 캐릭터가 아닐 수 없었다. 스토리는 꼬마 문필가 추재(조수삼)가 조신선을 따라다니며 다양한 책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설정했다. 예컨대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책이란 무엇인가? 왜 책장수가 필요했는가? 책의 유통 방법은 어떠한가? 독자층은 누구였는가? 조선시대 베스트셀러는? 조선 최대의 책장수 탄압사건, 기타 간서치, 교서관, 세책가, 방각본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통해 현대인들에게 책의 소중함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왜 책을 가까이해야 하는지를 재미있게 들려주고 싶었다²¹⁾.

『거리의 이야기꾼 전기수』는 조선후기 길거리에서 돈을 받고 전문적으로 소설, 곧 이야기책을 읽어주던 전기수를 통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낭독문화를 재조명한 것이다. 그와 함께 당시 대표적인 낭독 교재였던 고전소설의 실체를 살펴본 것이다. 이 작품도 역시 캐릭터와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 형식으로 그러한 낭독문화를 들려주고 있다. 우선 주인공 이자상은 『이향견문록』에 나오는 실존 인물로, 중인 출신의 유명한 전기수였다. 그는 총명하고 기억력이 좋아 어려서부터 읽지 않은 책이 없었고, 특히 이야기책인 소설을 훤히 꿰뚫고 있었다. 그래서 길거리 뿐 아니라 규방을 드나들며 소설을 낭독해주었다. 스토리는 그런 이자상을 비롯한 이업복, 김웅 등 전기수를 통해 조선후기 이야기책 낭독문화를 생생하게 들려주도록 설정했다. 전기수란 누구인가? 그들은 어떻게 해서 출현했는가? 전기수의 활동상은 어떠한가? 전기수 살해

21) 정창권, 『기이한 책장수 조신선』, 사계절, 2012.

사건, 기타 요전법, 이야기 짓는 법, 임경업전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리하여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이야기와 낭독문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²²⁾.

앞으로도 필자는 이러한 하층민의 역사를 계속 써서 어린이들에게 들려주려고 한다. 그래서 역사란 걸출한 위인들만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서도 이루어져 왔음을 보여주고 싶다.

3. 고전 스토리텔링의 과정과 방법

지금까지 필자는 고전을 연구하되 이야기체, 곧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글쓰기를 해왔다. 그렇다면 실제 고전 스토리텔링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일까? 고전 스토리텔링은 ①테마 선정→②자료 수집→③시놉시스 짜기→④집필하기→⑤제작하기 등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이를 토대로 고전 스토리텔링의 과정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고전 스토리텔링을 하기 위해선 첫째, 테마 선정부터 해야 한다. 테마란 일종의 소재와 주제로, 무엇에 대해 쓸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예컨대 앞에서 『기이한 책장수 조신선』의 경우는 조선 후기 최고의 책장수 조신선을 통해 당시의 책 문화사를 들려준 것이었다. 모름지기 테마는 귀가 솔깃할 정도로 참신해야 하고, 가급적 캐릭터와 스토리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와 함께 장르와 매체를 설정한다. 추리나 액션, 코미디, 판타지, 스릴러, 사극 등 어떤 장르로 만들 것인지, 또 출판이나 방송, 영화, 공연, 전시, 축제 등 어떤 매체로 담아낼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다. 필자의 경우는 주로 역사물 형식으로, 차후 인문서나 어린이책 등 출판을 염두하고 작업하곤 한다.

또한 자료 수집에 앞서 해당 테마에 대한 이론서나 경험담을 읽곤 한다. 이론서는 대상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눈, 즉 안목을 마련해주고, 경험담은 이야기를 좀더 실감나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둘째, 본격적인 자료 수집에 들어간다. 자료 수집은 오랫동안 최대한 많이

22) 정창권, 『거리의 이야기꾼 전기수』, 사계절, 2013

찾는 것이 좋다. 아는 만큼 이야기는 재미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 창작물이 아닌 고전 스토리텔링의 경우 자료 수집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렇다면 자료 수집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인가? 자료 수집은 크게 두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우선 1차 자료로, 해당 테마의 원전을 찾아서 읽는다. 그것이 한문본일 경우 최소한 국문 번역본이라도 찾아서 읽도록 한다. 원전은 해당 테마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해주게 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2차 자료, 즉 주변 자료들을 찾아서 읽어간다. 요즘은 대부분 자료를 찾을 때 인터넷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한데, 인터넷은 단순히 자료의 현황과 대중들의 관심사를 파악하는데 유용할 뿐이다. 필자의 경우도 인터넷은 본격적인 자료 수집에 앞서 신문이나 블로그, 이미지, 콘텐츠 등을 검색해보며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사람들의 관심사는 무엇인지만 대략 파악하곤 한다. 대신에 깊이 있는 자료 수집은 역시 전통적인 방법, 즉 도서관에서 도서와 논문을 찾아보는 것이다. 도서관에는 학술서와 교양서가 있고, 논문에는 단행논문, 석사와 박사 학위 논문이 있다. 필자는 그것들을 빠짐없이 찾아서 읽어가며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해간다. 돌이켜보면 한권의 책을 쓸 때마다 수집에서 수백 편에 이르는 도서와 논문을 읽는 듯하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독파하는 것은 아니다. 공부란 것도 경험이 많아질수록 자신도 모르게 유형별, 선택적 독서를 하는 능력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와 더불어 틈나는 대로 테마와 관련된 현장답사를 해서 주변 환경이나 유물, 유적, 구전 이야기를 직접 찾아보기도 한다. 작품을 쓸 때 간접적인 문자나 그림, 사진 등에 의존하는 것과 직접 현장을 돌아보는 것은 그 생동감에서 크나큰 차이를 낳기 때문이다. 특히 미시사적 접근을 하는 경우 이러한 현장답사는 거의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자료 수집에서 또 하나 빠트릴 수 없는 것이 선행콘텐츠 조사이다. 해당 테마와 관련된 출판이나 방송, 영화, 공연, 전시 등 선행콘텐츠를 찾아보는 것이다. 혹시라도 지금 쓰고 있는 작품과 유사한 콘텐츠가 이미 개발되어 나왔다면 낭패가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표절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다.

또한 사람들은 자료를 읽고 나서 머릿속에만 저장해두려 한다. 하지만 그

런 자료들은 시간이 흐르면 잊혀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필자는 자료를 읽으면 반드시 정리해서 요약집을 만들곤 하는데, 대략적인 작품 흐름에 따라 이야기를 만드는데 필요한 자료들을 꼼꼼하게 모아두는 것이다. 물론 도중 떠오르는 생각들도 자유롭게 적어둔다.

셋째, 시놉시스를 짜는 것이다. 시놉시스란 일종의 작품 개요이자 설계도라 할 수 있다. 위의 요약본을 토대로 기-승-전-결 혹은 발단-전개-위기-절정-결말 등의 형식으로 짜나가면 된다. 그와 함께 작품의 흐름을 그래프 형식으로 나타내는 이야기 모양을 만들거나, 이후 작품을 쓸 때 필요한 그림이나 사진, 도표 등 시각자료도 미리 준비해둔다.

넷째, 집필하기이다. 위의 시놉시스를 토대로 본격적으로 작품을 써나가는 데, 그야말로 뼈대에 살을 붙이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집필은 단 한번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다. 1차 집필은 스케치와 마찬가지로, 시놉시스와 요약본, 시각자료 등을 보면서 생각나는 대로 죽 써나가는 것이다. 1차 집필을 끝낸 뒤엔 약간의 공백기를 가지면서 남들의 의견을 듣거나 작품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기도 한다. 그런 다음 2차 집필에 들어가 앞에서부터 차분히 다시 써나간다. 이렇게 최소한 서너번, 많게는 예닐곱번까지 다시 쓰기도 하는데, 여러번 쓰면 쓸수록 작품이 재미있고 주제가 선명해지기 마련이다. 특히 필자는 집필할 때 먼저 연필로 쓴 다음 컴퓨터로 타이핑하는 습관이 있다. 그럼 작품이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써질 뿐 아니라 피곤함도 훨씬 덜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제작하기이다. 지금까지 써온 작품을 출판이나 방송, 영화, 공연 등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하는 것이다. 다만 영상물의 경우 제작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그래서 필자의 경우도 비교적 제작이 용이한 출판을 통해 대중들의 반응을 살핀 뒤 영상물로 넘어가곤 한다. 대개 출판은 출간제안서와 원고를 관련 출판사에 보내면, 편집장이 검토해서 출간 여부를 알려준다. 채택 요건은 1)참신한 테마인가? 2)내용은 흥미롭고 재미있는가? 3)사회에 유익한 작품인가? 등이다. 출판 기간은 대략 6개월에서 1년여가 걸리곤 한다.

이후 좋은 작품은 언론을 비롯한 독자들로부터 상상 이상의 호응을 얻을 뿐 아니라, 인터뷰와 저자 사인회, 초청강연 등으로 쉴 새 없이 불러 다니게

된다. 게다가 운이 좋으면 다큐멘터리나 드라마, 영화, 공연 등 보다 대중적인 매체로도 확대될 수 있다. 문화콘텐츠의 가장 큰 특성인 원소스 멀티유즈(One Source Multi Use)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영광과 기쁨이 있기에 고전 스토리텔러들은 위와 같은 고통을 감내하면서 좋은 작품을 쓰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4. 고전 스토리텔러의 미래상

날이 갈수록 국문학 박사학위자의 적체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국문과가 없어지고 학생 수는 줄어들어 그들의 교수 자리는 물론 강의 시간마저도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다. 그럼에도 다들 교수 임용에만 목표를 두고 공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국문학자가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의 하나로서 대학과 사회의 소통 역할을 하는 대중적 인문학자, 특히 고전 스토리텔러의 세계를 필자의 경험담을 토대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고전 스토리텔러가 되기 위해선 디지털 시대의 문학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이젠 문학에만 빠져 있지 말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융(복)합 등과 접목하여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나가야 한다. 서두에서 지적한 고미숙, 안대회 등처럼 현대적 의미의 고전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젠 국문학과에서도 <문화콘텐츠의 이해>, <한국 고전과 콘텐츠 개발> 같은 교과목이 개설되어야 한다.

또한 하루 빨리 스토리텔링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스토리텔링은 콘텐츠 개발의 핵심이자, 날이 갈수록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금 사회에선 다양한 종류의 스토리텔러들을 원하고 있다. 음식 스토리텔러, 패션 스토리텔러, 건축 스토리텔러, 정치 스토리텔러, 교육 스토리텔러, 유물 스토리텔러 등등. 그러므로 이젠 국문학과에서도 시, 소설, 수필, 희곡 창작론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스토리텔링의 이해와 실제>, <설화와 스토리텔링>, <고전창작론> 등과 같은 스토리텔링 과목들을 가르쳐야 한다.

더 나아가 바야흐로 융(복)합의 시대가 오고 있다. 미래의 핵심기술들은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들이 결합된 융(복)합에서 탄생할 것이다. 고로 앞의 정민이나 강명관, 고미숙, 안대회 등처럼 타 분야까지 포함한 통합학문을 해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이종학문간의 결합을 통해 국문학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 고전 스토리텔러는 과연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을까? 첫째, 좀더 자유롭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위에서처럼 교수가 되기 위한, 혹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한 공부는 자칫하면 기능적, 의무적 공부가 되기 쉽다. 반면에 고전 스토리텔러는 제도권 안에 있지 않으므로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의 공부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둘째, 수익구조를 다변화할 수 있다. 이들은 평소 강의만이 아니라 저술, 강연, 자문, 방송, 정부사업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게다가 요즘 사회에선 고전을 비롯한 인문학의 수요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물론 정규직 교수만큼 경제적으로 안정되지는 못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들의 수익구조도 결코 취약한 것은 아니다.

셋째, 정년이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만의 학문세계를 쌓아가기 때문에 체력만 뒷받침된다면 정년이 없이 계속 일할 수 있다. 특히 인문학은 깊이를 중시하는 학문이므로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찾는 사람들이 더욱 많은 편이다. 요즘 우리나라 교수들의 퇴직 이후의 삶이 상당히 문제시되고 있는데, 고전 스토리텔러들은 그동안 쌓아온 사회적 명성이 있어서 정년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 활동하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넷째, 세상에 유익한 학문을 할 수 있다. 이들은 대학과 사회의 소통 역할을 담당하므로 무엇보다 세상에 필요한 공부를 중시하는 편이다. 그래서 새로운 인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함으로써 대중들의 정신문화를 고양시키고 있다.

〈참고문헌〉

- 정 민, 『한시미학산책』, 숲, 1996.
- 정 민, 『비슷한 것은 가짜다』, 태학사, 2000.
- 정 민, 『와당의 풍경』, 열림원, 2002.
- 정 민, 『정민 선생님이 들려주는 한시 이야기』, 보림, 2003.
- 정 민, 『한시 속의 새 그림 속의 새』, 효형출판, 2003.
- 정 민, 『미쳐야 미친다』, 푸른역사, 2004.
- 정 민, 『꽃들의 웃음판』, 사계절, 2005.
- 정 민, 『다산선생 지식경영법』, 김영사, 2006.
- 정 민, 『조선의 차문화』, 김영사, 2011.
- 강명관, 『조선시대 문학예술의 생성공간』, 소명출판, 1999.
- 강명관, 『조선 사람들, 해원의 그림 밖으로 걸어오다』, 푸른역사, 2001.
- 강명관, 『조선의 뒷골목 풍경』, 푸른역사, 2003.
- 강명관, 『책벌레들 조선을 만나다』, 푸른역사, 2007.
- 강명관, 『열녀의 탄생』, 돌베개, 2009.
- 고미숙, 『공부의 달인, 호모 쿵푸스』, 북드라망, 2012.
- 고미숙, 『나의 운명 사용설명서』, 북드라망, 2012.
- 고미숙, 『고미숙의 몸과 인문학』, 북드라망, 2013.
- 고미숙,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 북드라망, 2013.
- 안대회, 『선비답게 산다는 것』, 푸른역사, 2007.
- 안대회, 『조선의 프로페셔널』, 휴머니스트, 2007.
- 안대회, 『정조의 비밀편지』, 문학동네, 2010.
- 안대회, 『조선을 사로잡은 끈들』, 한겨레출판사, 2010.
- 정창권, 『고전문학과 콘텐츠』, 월인, 2013.
- 정창권, 『향량, 산유화로 지다』, 풀빛, 2004.
- 정창권, 『꽃으로 피기보다 새가되어 날아가리』, 푸른숲, 2006.
- 정창권, 『세상에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문학동네, 2005.
- 정창권, 『역사 속 장애인은 어떻게 살았을까』, 글항아리, 2011.

- 정창권, 『MT콘텐츠학』, 청리람, 2013.
- 정창권, 『문화콘텐츠학 강의(깊이 이해하기, 쉽게 개발하기)』, 커뮤니케이션 북스, 2007.
- 정창권, 『문화콘텐츠 교육학』, 북코리아, 2009.
- 정창권,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북코리아, 2008.
- 정창권, 『기이한 책장수 조신선』, 사계절, 2012.
- 정창권, 『거리의 이야기꾼 전기수』, 사계절, 2013.
- 정창권 · 윤종선 · 방귀희 · 김언지, 『한국장애인사』, 숲대, 2014.

【국문초록】

요즘 국문학 박사학위자의 적체 현상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게다가 국문학과가 없어지고 학생 수마저 줄어들어, 그들의 교수 자리는 물론 강의 시간마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다들 교수 임용에만 목표를 두고 공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국문학 박사학위자들이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로서 대학과 사회의 소통 역할을 하는 대중적 인문학자, 특히 고전 스토리텔러의 세계와 미래를 필자의 경험담을 토대로 자세히 살펴보았다.

우선 필자도 여느 대중적 인문학자들처럼 문학에만 빠져있지 않고 역사와 사회, 과학, 예술 등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학문을 해왔다. 그래서 특히 여성사와 장애인사, 기타 하층민사 등 역사 속 소외계층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여러 편의 인문서와 어린이책을 세상에 내놓았다. 또한 필자는 그것들에 이야기, 즉 스토리텔링을 가미하여 대중들이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했다. 그와 함께 필자는 21세기 디지털 시대의 국문학은 문화콘텐츠의 원천 소스로서도 작용한다는 사실을 간파하고서, 그러한 고전의 현대적 수용만이 아니라 문화콘텐츠와 스토리텔링, 융·복합 등 최근의 응용학문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였다. 그리하여 다양한 연구성과 및 콘텐츠 개발, 정부사업 등을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필자는 고전 스토리텔링의 과정과 방법에 대해서도 간략히 살펴봤는데, 대체로 ①테마선정→②자료수집→③시놉시스 짜기→④집필하기→⑤제작하기 등의 순서로 이루어진다고 했다.

이처럼 본고는 필자의 경험담을 중심으로 고전 스토리텔러의 세계와 미래를 생생하게 살펴봄으로써, 향후 이러한 길을 걷고자 하는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했다.

주제어 : 대중적 인문학자, 고전 스토리텔러, 인문서, 어린이책,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융·복합

【Abstracts】

The field and future of a storyteller of old classics

Jeong Chang-Guen

These days congestion situation of the doctors of Korean literature is becoming serious. Besides, as the Korean literature course is disappeared and the number of students going down, their academic position as well as lecture time go down too. Nevertheless, most majors is studying with aiming employment of professor target. For this reason, I examined closely a popular literary scholar who play a communication role in university and society, especially the lancashire and the future of a classic storyteller as the foundation of my experiences in order that the doctors of Korean literature are a new way forward.

First, unlike a popular literary scholar who is mired only in literature, I have reserched into the integrated study including history, society, science, arts and so on. Especially, the history of women, the disabled, the lower class etc.. I have intensively studied a neglected class of people in history, and I gave several publications of liberal arts and children's books to the world.

Second, I have taken the manner of storytelling for the public to read easy and interesting. Along with that, I see through fact that Korean literature in the digital era of the 21st century come into original source of cultural contents, and I have taken an active interest in the latest applied science, for example, a modern interpretation of the classics, cultural

contents, storytelling, convergence/integration etc.. So I made a variety of research results, and I have worked on developing contents, a government enterprise.

Meanwhile, I check shortly about a process and method of old classics storytelling. Generally speaking, it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① selection of theme→②data collection→③written synopsis→④writing→⑤ production.

In this way, I examined closely the lancashire and the future of a classic storyteller with writer's experience at the center in this manuscript. By doing this, I wish to be helpful to writers in the same field.

Key words : a popular literary scholar, a classic storyteller, publications of liberal arts, children's books, cultural contents, storytelling, convergence /integration.

이 논문은 2014년 12월 19일에 투고되었으며, 2015년 1월 26일에 심사 완료 되어 2015년 2월 4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